

‘개각·당권경쟁’ 지역인사 거취·활약 주목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개각과 정치권의 국회의원 선출, 당권경쟁 등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거취 및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그 동안 미뤄졌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2-3곳에 대한 개각이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녹색돌풍’ 속에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은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며 동분서주했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거론·주승용 국회부의장 도전 송영길·전해철·최재성 등 민주당 당권주자로 나서

이 의원은 개각이 단행될 경우 현재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직은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자가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취임 8개월만에 그만두면서 현재까지 공석이다.

광주·전남 유일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이 의원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주 1곳, 전남 1곳을 모두 차지해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 당권도전을 위해 사퇴할 경우 이 의원이 후보군으로 속할 수도 있다. 김 장관의 당권

도전 여부는 당권경쟁의 최대 변수로 알려졌다.

최근 사의설이 나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취도 관심이다.

특히 지방선거로 공석이 많아진 청와대 비서관에도 광주·전남 출신이 중용될 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포진하고 있지만, 수석과 비서관급에는 지역출신이 거의 없는 상태.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제3당인 바른미래당 4선 주승용 의원

의 국회부의장 도전도 관심이다.

지방선거 이전만해도 국회부의장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선거 후폭풍으로 당이 분열조짐을 보여 향후 당 상황을 더욱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오는 8월 25일 예정된 민주당 당권경쟁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도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당권주자로는 광주 출신 송영길 의원과 목포 출신 전해철 의원, 화순 출신 최재성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 등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남을 누비며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와

함께, 사실상 당권도전 행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출신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모두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해 아쉬움이 컸으나 조만간 있을 개각에 지역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돼 다행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지역출신 민주당 당대표가 배출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출당시켜 주세요” 바른미래당 박주현(왼쪽)·장정숙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의 출당을 바른미래당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 비대위없이 ‘8월 첫째주’ 조기전대

정동영 “당대표 출마”...박지원 “중진 물러서야”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분란을 수습하기 위해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을 당초 8월 말에서 8월 초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20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최고위원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전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7월 29일과 8월 5일 사이에 전대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당헌에는 8월 31일까지 전대를 통해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조기전대를 치러 지도부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평화당 전대는 8월 첫째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대준비위원장은 정인화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다. 전남 평화당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지

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어 조배숙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 조기전대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화당은 당대표를 비롯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여성·청년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당연직 최고위원 3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9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에서는 최다득표자가 당대표에 오르거나 나머지 4명은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장병완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워크숍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최 의원은 “참패했다. 혹독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바른미래당이 26명의 당선인을 낸 데 비하면 우리는 57명의 당선인을 내는 등 호남에서 존립기반을 만든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 수습방안을 놓고 평화당 중진의원들은 대립했다.

특히 워크숍에 앞서 6선의 전정배 의원과 4선의 박지원·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당대표를 비롯한 차기지도부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새 인물을 키우고 있다고 있다. 박지원·정동영·전정배·조배숙은 (지도부) 전면에 나서지 말자고 오전 회동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평화당은 현재 정당 선인만 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제대로 장단이 안된 상태”라며 “조선이 당대표를 하면 단기적으로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 건설과정에서는 고도의 경합과 정치력이 필요하기에 중진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실상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광역단체장 후보 절반 선거비용 못받아

선관위,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접수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가운데 절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총 71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장 후보 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당선인(52.79%),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23.34%),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19.55%)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받지 못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탁금은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개별 지급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000만원, 구·시·군의 장 1,000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 등이다. /연합뉴스

“바르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시민께 신뢰”

집행부 감시·견제 술선...공정·투명 의회 최선



광역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 당선인



만들어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김 당선인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의정 활동 자문·평가단을 구성해 주민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지역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 주민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광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대 의회에서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당선인은 “바르고 정의로운 의회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강한 의회를 만

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우선 광주시 행정조직과 예산을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며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맞춰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대안을 마련, 세계수영대회 성공개최와 군공항 이전 및 도시철도2호선 등 산적한 현안사업을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주택단지 내 공용주차장 확대, 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개·보수,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학년 확대, 남구노인복지관 이전기반 조성, 향약박물관·광주박물관 건립 등을 제시했다.

/조기철 기자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칼슘,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아라비건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Zn), 셀레늄(Se)
- 두뇌 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탕 결정과, 올리고당

우리가족 당(糖) 프로젝트
당까지 생각한 베지밀에이스 두유

천연이 흡수되는 당(糖) 적용
발효에 함유된 성분으로 설탕에 비해 당 소화·흡수 속도가 1/5 정도인 ‘말티트로스’를 적용했습니다.

흡수까지 고려한 칼슘 영양 설계
우유와 동등한 수준의 칼슘 200mg(당밀기준치의 29%)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 15μg(당밀기준치의 30%)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산된 총원 47mg 함유
동일량에 소가된 영양은 당 관련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건강 원료입니다.

1주 문체 | 전국대도시 1577-0426 소정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1호기 고객센터 090-930-8888, (02)533-8888 www.vvegemil.co.kr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서울 02)533-8888, 대전 02)533-8888, 부산 02)533-8888, 대구 02)533-8888, 광주 02)533-8888, 전북 02)533-8888, 전남 02)533-8888, 경북 02)533-8888, 경남 02)533-8888, 충청 02)533-8888, 강원 02)533-8888, 제주 02)533-8888